

2020년 두 번째 호 (통권 31호)

별마을 010-11=71

(星村, 별 성 마을 촌)

붓별 떠우에

키작은 **개송화**가 피어 풋고 있다.
나도 마을밭을 꽃밭으로 가꾼다.

-팔월 서윤덕-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성촌의집
www.sungchon.or.kr

※ 소식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개인의 동의하에 수록하였습니다.

별마을 이야기 2020

(星村, 별성 마을 촌)

Contents

2020 Vol. 31

- 03 17년의 추억을 담은 정년퇴임
- 04 별마을 이야기#1 (성촌카페)
- 05 별마을 이야기#2 (코로나19 속 우리의 일상)
- 06 별마을 이야기#3 (샌드위치 만들기)
- 08 별마을 이야기#4 (혜영님의 환갑)
- 09 별마을 이야기#5 (새로운 도전, 인생 2막)
- 10 별마을 이야기#6 (4.15총선, 사전투표 현장)
- 11 별마을 이야기#7 (보일러 공사)
- 12 행복한 동행
- 14 댄싱퀸오브성촌
- 15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했던 성촌가족들의 17년을 생각하며 ~~

2020년 6월 이제 저는 정년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성촌의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입사한지 17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제는 머리가 하얀 배들레 햄의 모습이 되어 버렸죠.~

퇴직을 하면서 성촌의집 가족들에게 편지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무슨 말을 써야할지 ~~

많은 추억들이 내 머리에 스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동 그란 안경의 마치 빠삐옹이 생각나는 승원님의 “안녕하세요”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입사 후 바로 (2003년 7월19일~21일) 대천 해수욕장으로 하계캠프를 갔던 것이 생각나네요. 50명 정도의 이용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 약 100명 정도의 인원이 이동 되었답니다. 캠프 준비부터 식사 및 이동 지원, 프로그램, 장기자랑, 캠프화이어, 한여름 밤의 공연 등 3박4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캠프를 마치고 저는 몸살이 났답니다.

처음 입사 당시 물리치료실 운영을 어떻게 할까? 이용자들이 재미 있게 운동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건강지원팀장, 이용자, 물리치료사가 고민하여 악기를 다루며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기타와 피아노 등으로 소근육 운동을 함께 했던 시간이었어요. 성우님의 기타 치는 모습~~ (그때 성우님은 손이 굳지 않도록 재활운동으로 기타와 그림 그리기를 열심히 하였죠) 건강지원팀장님은 피아노를 치셨죠.....

또 생각나는 일이 있네요.

휠체어에만 의지하고 걸어보는 것을 포기한 것 같은 영우님을 보고 조금이라도 걸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고 원근처를 걷고 또 걷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여 5km.10km의 마라톤(러브미농촌사랑 마라톤대회, 인천국제마라톤대회) 완주했을 때의 감격이 기억이 나네요.. 정말 파이팅입니다.

그동안 좋은 기억들도 많았지만 슬픈 일도 있었죠..

장애로 인하여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에 먼저가신 분들도 계셨고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노인시설로 전원 가신분도 계셨고, 지금은 성촌의집에 없지만 자립하여 잘 살고 계신 퇴소생들의 얼굴도 한분 한분 생각이 나네요.

이글을 쓰면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봅니다.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 이었고 나를 잘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

성촌의집 가족들과 함께 나이 먹어가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서로 공감하며 건강에 대한 염려와 서로를 위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승원님은 “나는 팀장님의 좋아요. 우리는 한동갑이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야 해요, 팀장님을 위해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악수를 청합니다.

한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각 영역별 샘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촌카페

성촌의집 녹생공간에 카페가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성촌카페"**

비록 멋드러진 카페는 아니지만, 다양한 차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잠깐 바람을 쐬고 차 한잔 하면서 비타민D도 자연 섭취하도록..

다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서로 약속하여 시간대를 나누고 소규모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작은 공간이지만 이용자분들은 하루의 낙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면 우리 진짜 카페에 가서 차 마시고 와요~



코로나에 대처하는 우리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미디어에 ‘사회적 거리두기,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라는 캠페인이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마음마저 좁아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사람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사람의 가벼운 재채기 소리에, 기침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인상을 찌푸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연일 터지는 코로나19로 한다리 건너에 자가격리자가 생겨나고 그 안에 마음 좋은는 여러 헤프닝도 생겨납니다. 가까운 이웃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촌의집 가족들은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의 시간들을 보내며 지냅니다.

물리치료실에서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균형운동도 합니다. 소근육 운동으로 스케치북에 낙서하고 종이를 잘게 찢어보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인원 6명 이내로 제한하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생활관에서는 저녁 요리도 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색칠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미디어에서 ‘거리두기’라는 용어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샌드위치 만들기

별마을 사람들의 저녁 준비가 한참입니다.

그동안 잡채, 닭볶음탕, 불고기, 김치찌개 등 한식 위주로 요리를 해왔었는데요

이번 소식지에 샌드위치를 만드는 이용가족분들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4월 메뉴위원회가 있던 날

“샌드위치 만들어보고 싶어요” 승원님의 한마디에 이용가족분들이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샌드위치 재료는 뭐가 필요할까요?” “햄, 치즈, 마요네즈, 케찹, 양파요”

“양배추가 들어가야돼, 침치캔도” 현규님과 영우님이 재료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셨어요.

“계란이 들어가야 맛있지” 계란이 꼭 필요하다는 승원님.



군침 돌게 하는 성촌 샌드위치 만드는 과정 보여드릴께요~



시식시간~ 창환님의 한입 앙!

“좋아! 맛있어~!”





여자이용가족분들도 샌드위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남자이용가족분들과 다르게 감자볍벽을 넣어 만든 샌드위치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감자, 오이, 양파, 당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식당에서 계맛살과 옥수수캔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여자이용가족분들은 분담하여 요리를 하였습니다.

감자씻기, 감자 껍질끼기, 계란까기, 재료 썰기, 재료 섞기



여자이용가족분들 중에는 칼질을 잘하는 미정님이 계십니다.

"미정님! 칼질 잘하셔네요~" "해봤어. 언니네서~ 재밌어!"

미정님은 원가정에 가시면 요리와 집안일을 잘 돋는다고 해요.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한 별마을의 저녁 풍경입니다.

혜영님의 특별한 날

감사 합니다

2020년 4월 9일은 저의 환갑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상도 차리고 배하고 사과도 올리고 케이크도 먹어야지요.”

“와준 사람들한테 떡도 돌리고 케이크도 같이 먹고요.”

“한복 입고서 하고 싶어요.”

담당복지사님이 환갑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지 질문에 제가 원하는 환갑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님하고 같이 환갑을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밖으로 나가서 직접 준비물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님에게 대신 구입해달라고 부탁해서 과일과 케이크, 떡 종류는 내가 직접 결정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복지사님이 제가 생각한대로 구입해 주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한복집 사장님도 마음에 쓱 드는 예쁜 한복을 후원해 주어서 고마웠습니다.

‘내 환갑에 초대합니다. 혜영.’이라고 직접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성촌의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도 웃으며 즐거운 표정으로 초대에 응해 주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4월 9일 손꼽아 기다리던 환갑 잔치날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초대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축하해주려 와주었습니다. 축하편지와 선물도 많이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고 다같이 어울려서 춤도 추고, 함께 축하 해주는 사람들과 제가 좋아하는 과일, 떡, 과자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 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이 환갑을 맞이하면 똑같이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줄 것입니다.

2020년 4월 9일은 저에게 좋은 기억들이 한가득 했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잊지못할 추억을 같이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혜영-



새로운 도전, 인생 2막



정년퇴직 그리고 새로운 도전.

“근택님 한지공예에 출근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요? 빨리 일하러 가고 싶어요!”

“현대공예직업전문학교에는 연락해 놓을께요. 출근시간 잘 지켜주셔야해요.”

“당연하죠. 저 지각 안해요.”

상담이 끝나고 근택님의 얼굴에는 긴장이 풀린 듯 미소가 번졌습니다.

“2월 3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근택님의 한지공예직업훈련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2월 3일 근택님의 첫 출근날입니다. 인천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현대공예직업전문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한지공예과정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저런거 만드는 거구나. 재밌겠네요.”

오리엔테이션을 집중하며 듣던 근택님의 문득 던진 말에 김기철 사회복지사는 놀랐습니다.

“근택님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재밌을 것 같다고 한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잘 만들어서 가질 수 있는거잖아요. 잘 배워서 만들어야죠.”

“그럼요. 근택님이 관심을 가진 만큼 좋은 결과로 멋진 한지공예품이 나올 것 같아요.”

낮12시에 시작된 오리엔테이션은 한지공예 훈련과정 계약 까지 이어졌습니다.

“근택님. 계약서 내용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현대공예직업전문학교 직원의 설명에 근택님은 양손으로 계약서를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택님에게 어려웠던 문장인 ‘지급한다’를 직원에게 물어본 것 말고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자필 서명을 하였습니다.

성촌의집에서는 낙길님과 근택님이 한지공예 직업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지공예 강사의 설명을 귀담아 들으며, 열심히 한지를 접고 그렸습니다. 근택님의 그 모습에서 일에 대한 열정이 한가득입니다.

하지만 2월경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현대공예직업전문학교로 출근을 하지 않고 성촌의집에서 재택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장소가 달라졌다고 해도 근택님의 열정은 그대로입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현대공예직업전문학교로 출근하고 싶은 근택님의 마음을 응원해주세요.

일 잘할 것 같은 국회의원 후보에게 투표했어요!



4월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별마을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4월 15일보다는 사전투표일인 4월 10일에 선거참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투표하는 걸 모르겠어요. 광려주세요."

별마을 사람들의 의견으로 성촌의집 안에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애인용 선거교육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선거교육사진

4월10일 대망의 사전투표날~!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필수~! 성촌의집 입구에서 출발 전에 마스크를 쓰고 체온체크를 했답니다.



마스크 쓰기, 체온체크 하기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투표장소인 심정2동 주민센터로 그룹을 나누어 15분 단위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별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투표할 후보에 대해 생각하며, 부푼 마음으로 이동~
심정2동 주민센터에 벌써 많은 동네이웃들이 줄서고 있었습니다

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추어 2m 간격으로 줄을 섭니다. 투표소에서도 체온체크를 했답니다.



줄서기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의 안내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하고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였답니다.

투표 후에 성촌의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체온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새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30초동안 손씻기도 하였답니다.



체온체크하기, 손씻기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고 나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는 것 같은 사람에게 투표했어요."

"투표는 나쁜 줄 알았어요. 대통령선거 때도 했던 거예요."

"내가 투표했어요. 저기(투표장)에 넣었어요."

저마다 별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했다는 것에 즐거움이 한가득한 날이었습니다.



투표인증

보일러공사

성촌의집에서는 보일러 공사가 있었습니다.

2012년 준공된 남자생활동의 보일러가 중앙난방식이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 중에는 갑작스레 목욕 지원이 들어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수시로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보일러의 고장으로 난방과 온수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미뤄왔던 보일러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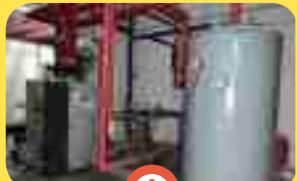
중앙난방식에서 캐스케이드 방식인 개별시스템보일러로 바뀌었고 각 방마다 보일러 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온도 조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자생활관과 식당의 온수 보일러가 연결되어 있어서 식당에 온수가 필요할 때 남자생활관에 보일러가 작동되어 한여름에도 방바닥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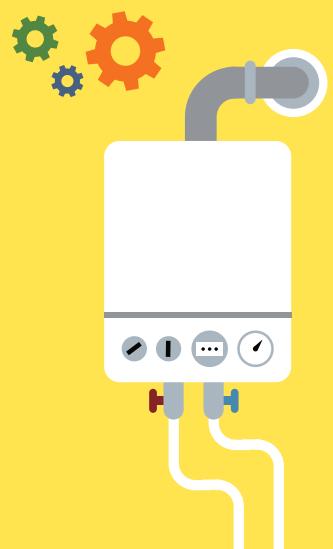
식당에서는 온수 사용을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잠깐씩 보일러를 돌려야만 했었는데요. 이번 공사로 인해 뜨거운물을 수시로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한내에 완료해주신 공사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사 전
(중앙난방식)



공사 후
(개별난방식)





2020.03. ~ 2020.05.

CU동암제일점 대표 김숙정



간식 후원

교촌경인유통



교촌리얼치킨버거, 신화치킨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쌀 후원

신진영 라성약국 대표



의약품(구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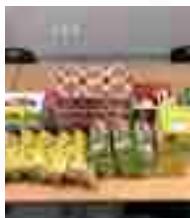
애니데이 신차남 대표



간식 후원

원가정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내자며
보내주신 간식들

강인성, 고학재, 김은이, 김인숙, 김현주,
성낙경, 이말선, 이영선, 전정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후원물품 2020.03. ~ 2020.05.

김성진한의사



한방차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코로나19 대응 키트세트

십정2동행정복지센터



면마스크와 필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위생용품지원사업

좋은 이웃들

2020.03~2020.06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코로나-19 시설 방역

한우리봉사단



중식 도시락

댄싱 퀸 오브 성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관절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동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소극적 활동으로 인하여 우울감 마저 찾아오곤 합니다.

동적인 운동을 통하여 장애 특성에 맞는 운동 능력을 구사하고 이를 통해 우울감의 탈피와 적극적인 활동으로의 전환은 이용장애인에게 성취감과 활력있는 생활을 유지해 줍니다.

인천장애인체육회에서는 매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모집합니다.

성촌의집에서는 2018년 '꿈을 실어 더멀리' 에 이어 2019년 '꿈 실은 희망다리' 라는 건강다리 프로젝트를 계획, 선정되어 이용가족들의 다리 균육 강화 운동에 집중하여 걷기대회에 출전도 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이용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운동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재밌는 운동을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편마비 이용자분들도 따라 할 수 있는 쉬운 운동 그리하여 '댄싱 퀸 오브 성촌'을 계획하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칭을 접목시켜 유연성을 길러주고 즐겁게 운동함으로써 생활에 활력을 찾아주어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운동. 역동적 댄스가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 댄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댄싱 퀸 오브 성촌"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이용자들과 즐겁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후원자 명단 (2020.03.01.-2020.05.31.)

+ 신규후원자

개인 : 김숙정

단체 : 인천광역시간호조무사협회

+ 지정후원금

개인 : 이은주(성촌의집), 임미정

해피빈(아이디) : 강민형, 강성호, 김기철, 길라잡이, 닉간, 따뜻한복지, 박명숙, 배수경, 빛과소금 아름다운세상, 아이리스, 에이취, 연우, 이미복, 이사미, 이은주(성촌의집), 성촌지기, 소요유, 송희연, 숨은천사, 장순, 현우야사랑해, 혜민공주, 항동베어스, CoffeeHolic, cchcake001, hamas, hey, kka, kkz, kkzztt, mylove, liiy_h, liiyh73, liiyh732002, seongho7670, riu0213

+ 비지정후원금

CMS : 김기순, 김은미, 김인수, 박경진, 변문수, 손대원, 윤재경, 이구형, 이상진, 이은주(부평우체국), 정금자, 조광매, 조근태, 조성숙, 최경자

개인 : 김숙정, 김용애, 김현보, 박남호, 박왕진, 박점숙, 백설희, 백준희, 서영재, 서하나, 신진자, 신차남, 유계월, 이미복, 이은주(성촌의집), 이향란, 전정호, 정민영, 정상용

단체 : 건강길악국, 교촌에프앤비(주), 동암교회, 라성악국, 인천중앙감리교회, 인천광역시간호조무사협회

+ 후원물품

이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후원물품(소독제, KF94마스크, 멘탈마스크, 손세정제, 소독티슈, 위생용품, 비접촉체온계, 일상용품, 한방차, 방역활동 등)

: 이사미, 대한적십자사인천광역시지사, 부평구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성촌재단(김성진한의사), 십정2동행정복지센터, 오가닉브릿지, 인천광역시청,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이용자 간식지원 : 강인성, 고학재, 교촌경인유통, 김인숙, 김은이, 김현주, 성낙경, 송성희, 이영선, 이말선, 장순, 전정호, 태은실, 애니데이, CU동암제일점

이용자 주부식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부평지사,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태은실

이용자 환갑축하 : 박명숙, 이소정

의약품지원 : 라성악국

기타물품지원 : 김용애, 이미복, 장순

▣ 자원봉사자 명단(2020.03.01.-2020.05.31.)

단체 봉사자

★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 코로나-19 시설 방역

김문규본부장, 이현우

★ 한우리 봉사단 – 종식 도시락

김지환회장, 강신자, 김종숙, 김지영, 엄옥자, 오연자, 장배원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2020.01.01.-05.31.)

세 입			세 출		
지정후원금	공동모금회 사업비	13,500,000	운영비	수용비및수수료	840,420
	해피빈	644,600		공공요금	1,909,450
	지정후원금	130,000		제세공과금	1,250,000
비지정후원금			재산조성비	자산취득비	1,055,600
	CMS후원금	600,000		시설장비유지비	374,000
	단체후원금	3,490,910		연료비	4,461,670
비	개인후원금	2,818,500	사업비	의료재활사업비	225,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150,000
	기타참수입	30,803		지역자원 연계사업비	84,400
		21,214,813	사업비	영양관리사업비	771,000
				인권사업비	70,000
			합계		11,191,540

성촌의집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성촌의집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이용자들의

여가 시간으로 성촌 소극장을 운영하기 위한

빙프로젝터와 스크린을 후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가족분들의 외출 제한으로 마스크등 일상용품 구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아낌없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과 후원자분들의 많은 관심 기다립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있습니다.

성촌의집 이용장애인의 가치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CMS(Cash Management Service)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정기 후원신청서 작성성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관리 하에 정해진 날짜에 후원자님의 계좌
에서 성촌의집 계좌로 약정금액이 이체되는 제도

후원신청방법

후원신청서 작성, 전화,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성함,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후원금액, 출금날짜)

♥ 자동이체후원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 (예금주:성촌의집)

신용협동조합 131-009-995822

국민은행 660401-01-641623

중소기업은행 108-093168-04-011

농협은행 301-0072-5929-41

우체국 100115-01-000694

새마을금고 9002-1870-3578-7

♥ 모금함

성촌의집 모금함에 후원금을 모금

모금함 설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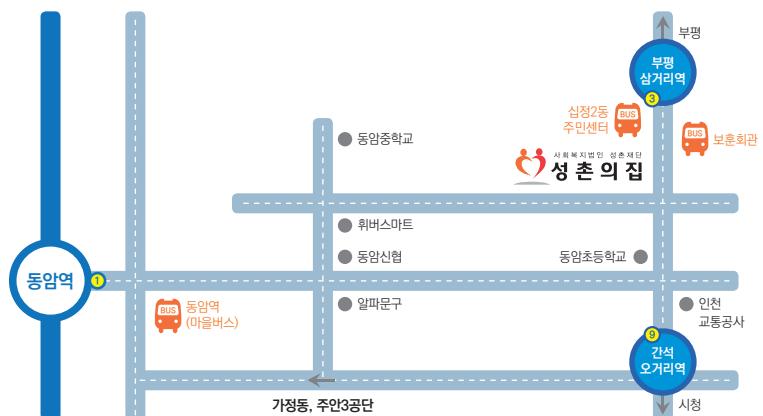
- 모금함을 놓을 작은 공간 마련
- 손님들에게 성촌모금함을 홍보
- 모금함이 다 모이면 성촌의집으로 연락

♥ 물품 후원

일상용품 (청소용품, 마스크, 여성용품)
가전제품(컴퓨터, 건조기)
사무용품(빔 프로젝터, 스크린)
보조기기(리클라이너 침대 등)

♥ 결연후원

성촌의집 이용장애인과 1:1 후원으로
관계형성함으로써 결연이용자의 자립지원금,
일상용품 구입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



BUS/버스

마을버스 : 531, 532A, 532B, 533, 535, 536, 537, 538, 539,
564-2(동암역 하차)
시내버스 : 2, 111-2, 34, 45번(심정2동주민센터, 보훈회관 하차)

SUBWAY/지하철

국철 : 동암역(1번 출구)
인천1호선 : 간석오거리역(9번 출구),
부평삼거리역(3번 출구)

♥ 해피빈콩 (클릭으로 참여하기)

후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참여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naver에서 쿠팡배너를 클릭하고
콩(1개=100원)을 받아 <http://happylog.naver.com/sungchon.do>, 네이버 해피빈에 "성촌의집"으로 검색 후 모금함에 콩 기부



별마을이야기 2020년 두 번째 호 (통권31호)

발행처 | 성촌의집 발행인 | 이은주 편집인 | 이향란 편집위원 | 김기철, 유성우, 장연희

주소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26 (인천시 부평구 심정2동 586-2)

전화 | 032)422-0573 팩스 | 032)433-2572

홈페이지 | www.sungchon.or.kr 디자인 | 해성디자인 032)508-2912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